

[영국] 과자류 제품 개발 동향

최근 영국의 대표적인 시장조사기관인 레더헤드 식품 연구소 (Leatherhead Food Research)가 발간한 '글로벌 과자류 시장의 혁명'이라는 보고서에서 좀 더 커진 포장 그리고 견과류가 들어있거나 이국적 과일 맛이 나는 제품들을 과자류 신제품 개발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을 수 있고 언급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레더헤드 식품 연구소는 초콜렛, 다당류 제품 그리고 슈링글 제품 개발을 주요 트렌드로 꼽았다.

1. 포장 규격



최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제품 규격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친목 모임 등에서 과자류를 나누어 먹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이러한 과자류 수요 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좀더 큰 규격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누어 먹기에 적합하게 더 큰 봉지에 담겨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경제 불황으로 이전에 비해 외출보다는 집에서 나누어먹으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가 잘 반영된 대표적인 제품은 영국 Cadbury 사의 'Bitsa Wispa'로, 한입 크기의 작은 초콜렛이 큰 봉지에 들어 있다.

2. 견과류 및 카라멜

견과류와 카라멜을 함유한 제과류는 새로 개발되고 있는 제품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편이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초콜렛 과자류 제품의 거의 1/3 에는 견과류가 들어있다고 보고하였다. 견과류 중에서 헤이즐넛과 아몬드가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출시되는 초콜렛 관련 신제품 중 아몬드가 들어 있는 제품이 전체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견과류가 들어있을 경우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고,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어 소비자들이 이러한 견과류가 함유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 독특한 맛

과일맛 제품, 특히 이국적인 열대 과일 맛 제품이 다당류 제품에서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는 세계 추잉껌 시장에서도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박, 망고, 녹차 맛의 인기가 높은 가운데, 칠리, 시나몬 맛 제품도 특히 히스패닉 계열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저조한 섹터

위의 특징들이 과자류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성적이 저조한 섹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것으로는 기능성 과자류와 무가당 또는 저칼로리 초콜렛 등이 있다.

정보제공: foodanddrinkeurope.com